

제 목 : ART on Paper

작 가 : 산정 서세옥, 김은주, 최례

날 짜 : 2021.10.08(금) - 11.16(화)

문 의 : 양유진

E-mail : carinofficial@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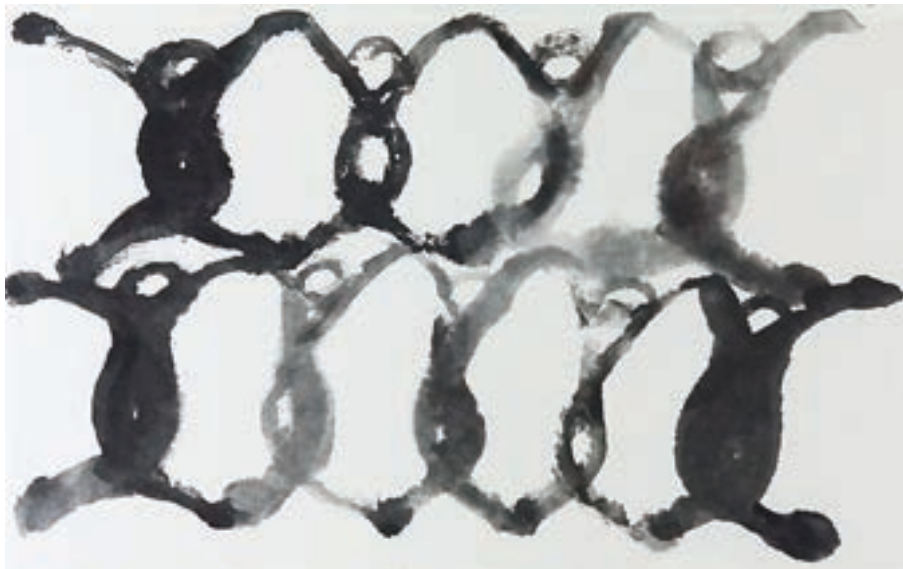
Tel. 051-747-930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54

카린에서는 수묵 추상의 거장 고(故) 산정 서세옥 화백의 대표작인 '인간 군상' 작업 19점을 포함해, 종이 위에 연필로만 30여년간 드로잉작업을 이어온 김은주작가, 전통 수성목판화 작업하는 최례작가의 <Art on Paper>展을 개최한다.

동양화 1세대였던 산정 서세옥은 서예 기법을 회화에 접목하여, 먹으로 그리되 간결한 선묘와 담채에 의한 담백한 공간 표현을 통해 파격적인 수묵 추상으로 독창적 화풍을 개척했다. 서세옥의 기념비적인 '사람' 연작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이다. '사람' 연작은 추상적인 붓터치로 마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은 듯 연결된 도상으로, 그의 화업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서 확장된 작업이다. 이 시리즈는 점과 선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과 굵기, 그리고 농담을 가진 필법으로 다양한 인물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추상화이면서도 구상화이기도 한 그림 속 인물들은 연령, 인종, 그리고 성별로 구분할 수 없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원의 미, 절대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점과 선만으로 집약해야 한다." 서세옥은 자신의 조형 이념을 이렇게 요약했다. 자연의 근원적인 질서는 '영원미' '절대미'이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점과 선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가 평생동안 장황한 설명과 군더더기를 모두 걷어내고, 오로지 중요한 점과 선, 즉 뼈대만으로 그림의 가장 높은 경지를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세옥은 서울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한국미술의 국제화 흐름에 앞장서 상파울루비엔날레, 카뉴국제회화제 등에서 활약했다.



서세옥, 사람들, Ink on mulberry paper, 45x28.5cm,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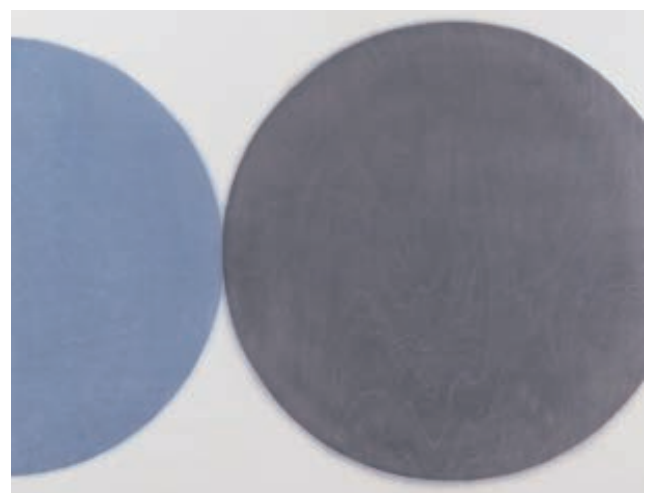


김은주, 가만히 꽃을 그려보다, 종이에 연필, 100x80cm, 2018

김은주는 10여 년 전부터 종이에 연필로만 대형 드로잉을 해오고 있다. 김은주 드로잉의 맛은 작업(working)에 있다. 톰바우, 파버카스텔, 코이노 등 외국산 4B 연필로 수많은 겹쳐져 그려진 꽃잎은 작업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재료와 시간의 중첩과 응축, 꽃이라는 사물의 상징성과 보편성, 형태와 질감의 다양한 변주는 드로잉의 고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 연필로 그린 검은 꽃은 빛의 위치, 즉 관객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입체경을 보여준다. 짙고 짙은 일차원의 선이 수백차례 그려지면 하나의 입체적인 꽃잎이 완성된다. 오랫동안 종이와 연필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집요하게 작업해온 김은주는 늘 이미지를 뛰어 넘는 에너지와 삶을 화폭에 노출한다.

최례 작품의 주된 주제는 **공**이다. 공은 단순한 이미지인 원으로 표현되고 원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처음의 점까지 도착해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모난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작업의 주된 표현기법은 전통 수성 목판화의 기법을 이용한 작업과 모노타이프 판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회화 작업 등이다. 목판화 특유의 물질성을 가지면서도 종이 위의 동양화 같은 깊이 있고 부드러운 화면이 매력적이다. 딱딱한 목판과 부드러운 물이 만나 수성 목판화만의 독특한 화면을 완성하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원을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의 찍고, 말리기를 반복한다.



최례, 공-353, ricepaper, woodcut-waterprint, 100x80cm, 2021, ed.1/1

## 서세옥, Suh Se ok 1929-2020

산정 서세옥은 1950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갤러리 현대(2016), 국립현대미술관(2015), 미국휴스턴미술관(2008), 일본 메종 에르메스(2007), 한국 대전시립미술관(2007), 의재미술관(2003) 외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미국 LACMA의 Beyond Line:The Art of Korean Writing(2019),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Another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Art(2016), Colleague of Fine Arts Archives:Oriental Painting(2015), 삼성리움미술관 개관10주년 기념 전시 Beyond and Between(2014),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의 Then and Now: Celebrating 6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 of the Republic of Korea(2014), 경기도미술관의 Closer to Contemporary Art II-Abstract Art is Real(2013), 부산비엔날레(2008), 브라질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1963)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서세옥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2021년 금관문화훈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1999년 제 13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문화상 대상, 1994년 일민예술상, 1988년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 미술학 명예박사,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그의작품은 영국 대영박물관, 일본 후쿠오카미술관, 한국호암미술관, 프랑스 문화부, 미술 휴스턴미술관, 한국국립현대미술관, 미국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캐나다 로열 온타리오 미술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아트선재센터, 미국 USC 퍼시픽 아시아 박물관, 한국 원광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등 유수의 공공기관과 개인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

## 김은주, Kim Eun ju 1965-

부산여자대학교(현.신라대학교) 미술학과 학사/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아트소향, 갤러리 룩스(2018), 포스코미술관(2016), 아트스테이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싱가포르, 도쿄 갤러리 커션, 해외문화예술공간, 갤러리폼(2014), 갤러리로얄(2013), 미고화랑(2012), 심여화랑(2011), 신화갤러리(2010), 김스아트필드, 문화공간 비움(2008), 프랑스문화원, 벨벳갤러리(2007), 문화일보갤러리(2006), 갤러리 편도나무 / 송은갤러리(2005), 인사아트센터(2004), 관훈갤러리 / 문화일보갤러리 / 덕원갤러리(2002), 시청전시실, 부산 ,모리갤러리, 도쿄(2001), 전경숙 갤러리(1999,1997), 스페이스월드(1995), KBS 전시실(1990)그 외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제1회 청년작가상 (2001부산미술협회) 수상하였고, 부산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아난티클럽,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포시즌호텔 서울, 서울스케어, 로알앤컴퍼니의 다수에서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최례, Choi Re 1985-

중국 중앙미술학원(CAFA) 예술학 박사, 중국 중앙미술학원(CAFA) 판화과 석사, 한국 중앙대학교 한국화과 학사 졸업했다. <行雲流水> 한국 Bomstay gallery, <공생 空生> 한국, kz art space gallery(2021), <宇宙> 한국, 흥티아트센터, <遊心 -노니는마음> 한국 Bomstay gallery(2020), <色.空> 중국 북경 중앙미술학원 博雅전시실(2018), <비움과채움> 한국 Artybox Busan(2017), <色.世界> 중국 북경 798 gallery ArtPark(2013) 개인전에 참여했다. 제5회 중국 관란 국제판화전 입선, 제16회 대만 중화민국 국제 판화전 입선, 제4회 중국 관란 국제판화전 입선, 제2회 중국 운남 국제판화전 입선하였고, 흥티아트센터 8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